# 반야바라밀서 지혜의 빛을 보다



원욱 스님의 경전산책

⑪ 〈반야심경2〉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여 모든 고통과 재앙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자(起) 사리불은 관자재보살에게 반야바라밀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묻는다(承). 관자재보살이 답하기를 반야바라밀을 실천하려는 이는 반드시 만물을 공성(空性)으로 파악하는 안목으로 실천행을 하라고 한다.(轉). 그러자 부처님은 관음을 지극히 칭찬을 하시고, 대중들은 기쁨으로 이 경전을 수호하겠다는 서원을 하며 끝난다(結).

광역반야심경은 완전한 기승전결의 구조 속에서 관세음을 통해 우리가 행복이라는 집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준다.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아, 색 곧 공이요, 공 곧 색이니 수 · 상 · 행 · 식도 또한 이와 같다."**

색(色)과 공(空)은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모든 것들이다. 색을 나라고 한다면 공은 내가 부딪치는 모든 상황들이기 때문이다. 그 상황들을 바라보는 기본적 안목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다. 모든 것이 변해가고 있으니 애달프게 붙잡으려 하지 말고 편안하게 바라보듯 살라는 가르침인 것이다.

철학적으로 '공과 색'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실 속에서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움을 만끽하라는 가르침이다. 어린아이가 동생을 하루 종일 등에 업고 있다가 내려놨을 때 등짝이 사라진 것 같다는 표현처럼, 인생의 무게를 내려놓을 때 드는 홀가분한 마음처럼 좋은 것이 또 있을까. 이것이 바로 행복을 설계하는 사람이 지녀야 할 첫 번째 마음이다.

**"사리자여, 이 모든 법 공한 상은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늘지도 않나니, 이 까닭에 공 가운데 색 없어 수 · 상 · 행 · 식 없고, 안 · 이 · 비 · 설 · 신 · 의 없어, 색 · 성 · 향 · 미 · 촉 · 법 없되 안계 없고 의식계 까지 없다."**

집착하지 않고 홀가분하게 자유로워질 준비가 되었다면 두 번째로 우리의 찬란한 아름다움이며 본래 부처님 자리인 자성청정심(自性淸淨心)을 들여다보자.

내 안의 청정한 마음은 갑자기 어디서 뚝딱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라져가는 것도 아니며, 마구 늘어나는 것도 아닌 본래 청정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안에 여여하게 있으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멋진 모습을 하고 있다. 특출난 사람만이 지닌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 나의 이런 모습(6根)이 일상에서 여러 상황들과 마주칠 때, 긍정적인 반응(6境)과 부정적인 반응(6塵)을 하게 된다.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긍정의 자리이타(自利利他)와 모두 같이 죽자는 부정의 자사사타(自死死他)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모두 알고 있듯이 자리이타, 긍정적인 삶의 모습을 나의 정신세계에 추억과 기억으로 지혜롭게 저장해야한다(6識). 이것이 나의 세계관이 되어 가치관을 만드는 나만의 세상인 18계(界)다.

자성이 청정한 것을 불성이라 한다. 부처의 성품을 지닌 이는 언젠가 부처가 될 것이란 가치관이 드디어 형성된 것이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인연들이 서로 스치고 지나가며 온갖 희노애락을 만들어 내지만 언젠가 부처가 될 것이라는 희망은 절대 놓지 말아야 한다. 지혜롭게 고통의 삶을 벗어나기 위한 고집멸도의 사성제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을 다스리고 수행하면 걸림 없이 홀가분해질 것이다. 그 때 미지에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여의고 반드시 해탈의 길에서 행복을 만날 것이라는 행복설계의 가르침을 따라 지혜를 닦아야만 갈 수 있다하여 '반야바라밀의 길'로 부른다.

우리 다 함께 이 길을 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지혜의 빛으로 가자고 소리 높혀 노래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서울 반야사 주지〉

# 물건에 대한 애착을 부처님께 바쳐라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⑪ 금강경 제3분의 현실 응용

내가 선지식을 처음 만날 당시는 육군 공병단에서 육군 소위로 군복무를 하고 있을 때였다. 당시 ○○야공단에서 군복무를 하던 동기생은 10여 명 정도 되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동기생을 만나 대화를 주고 받는 것은 유일한 낙이었다. 서로 괴로움을 호소하기도 하고 유익한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였다.

어느 날 인접 부대에 근무하던 동기생 한 명이 자신이 아끼던 반지를 나에게 보여주며 마치 선물이라도 주는 듯 "이 반지 네가 끼고 있어라"고 하였다.

반지를 끼고 있는 모습을 본 같은 부대 한 장교가 "김 소위, 잠시 내가 그 반지를 끼워 볼 수 있을까?"라며 그 반지를 잠시 자신에게 빌려 달라고 했다. '잠시 끼워 볼 수 있을까?'는 말에 불안한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거절하기 힘들어 반지를 빌려주었다. 역시나 며칠이 지나도 전혀 돌려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고심 끝에 "중위님, 그 반지는 실은 제 반지가 아니고 동기생이 잠시 빌려준 반지입니다. 돌려주어야 하니 어서 주시지요"라고 정식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웃으며 반지를 전혀 돌려주지 않았다. 돌려줄 생각이 없어보였다. 그에게 자꾸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면 결국 그와 싸움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에 싸우지 않고 돌려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했다. 한참 망설인 끝에 선지식에게 이 사실을 여쭈었다.

묻기 전 생각이 많이 들었다. '선지식은 이 질문에 대해 무어라 답하실까?' '초등학생 같은 질문을 어째서 나에게까지 가져오느냐? 네가 알아서 처리해야지 않느냐고 하시지 않으실까?' 등 이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놀라웠다.

"반지를 되돌려 달라 요청하지 말고, 그 반지를 그리 속히 가져오게 되었나? 얼마 후 선지식의 말씀을 통해 반지를 돌려받게 된 전모가 알려졌다.

"반지를 돌려받고 싶은 마음을 부처님께 바쳐라."

"반지를 돌려받고 싶은 생각을 바친다면 그 반지를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전혀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절로 질문이 나왔다.

"그 생각을 잘 바친다면, 그 사람은 정신없이 반지를 가지고 너에게 달려 올 것이다."

나는 선지식의 그 말씀을 고지식하게 믿고 반지를 되찾고 싶은 마음을 부처님께 바치려고 노력했다. 반지를 되돌려 받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니 마음이 편해지기는 한데 과연 그 마음을 바침으로 선지식의 말씀처럼 반지를 정신없이 가져오는 일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반지 빌려 준지 한 달이 되도록 바치는 공부가 계속 되었지만 소식은 감감하기만 하였다. 이렇게 되니 선지식의 말씀이 틀리다는 생각도 들고 내가 제대로 바치지 못했다는 생각도 들면서 생각이 오락가락했다.

반지를 되돌려 달라는 생각을 포기한 순간 놀랍게도 그 중위가 반지를 되돌려 주었다. 조금 전까지 전혀 반지를 되돌려줄 기미를 보이지 않던 그가 어째서 반지를 되돌려 주었는지 궁금하여 물어보았다.

"반지를 빌려 달라던 상급자는 빌려달라는 순간 되돌려 줄 생각이 없었다. 네가 반지를 되돌려 달라고 말하려 했을 때 내가 말린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너의 요구만으로는 도저히 상급자의 마음을 움직일 힘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그 반지에 대한 애착심을 부처님께 바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반지에 대한 애착을 부처님께 바치라는 것은 무슨 뜻 인고. 반지에 손과 발을 묶어 놓은 것을 풀라는 것과 마찬가지 인 것이다. 반지에 대한 애착을 부처님께 바쳐 애착을 해탈하게 된다면 이는 마치 묶인 손과 발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반지에 대한 애착을 부처님께 바치는 결과 부처님 광명이 임하시게 되고 그 순간 그 반지는 네반지가 아닌 부처님의 반지가 되는 것이다. 부처님의 반지가 되는 순간 그 누구도 반지를 가지기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겠느냐."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 마음을 밝히고 참성품을 보다

달마스님께서는 외식제연(外息諸緣) 내심무천(內心無喘) 심여장벽(心如障壁) 가이입도(可以入道)라고 하셨다, 즉 "밖으로는 여러 반연(攀緣)을 끊고, 안으로는 부단한 욕심으로 헐떡거리지 않고, 마음이 철석같은 흔들림이 없어야 도에 이른다"는 말이다.

'반연심'이란 반연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반연은 인연과 연관이 있다. 원인이 조건 즉 연(緣)을 만나는 것을 반연한다고 하며, 그래야 과보를 낳게 된다. 마치 씨앗이 물, 온도, 영양분을 만나야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것을 의식 작용서 살펴보면 마음이 외부 경계에 반응하는 것을 반연한다 하지만, 내부 의식이 업식을 상대해서 생겨난 생각, 기분, 감정들도 반연심이다. 이것은 본래 청정한 마음이 아닌 작용에 의해 생겨난 마음 작용으로서 마치 본래 마음이 물이라면 물위서 생겨난 물결(번뇌망상)과 같은 것이다.

수행하는 사람은 육근을 거둬 들여 한 생각이 일어나는 곳을 쫓아 살피고, '이 뭣고'로 비추면 생각을 떠난 청정한 자기의 마음에 도달하게 된다. 다시 담담하게 고요히 하고 '이 뭣고'로 비추어 보면, 곧바로 오온(五蘊)이 다 공하고, 몸과 마음이 함께 고요해 마침내 한 일도 없게 된다. 이렇게 밤낮으로 다니고 앉고 눕거나 한결같이 공덕이 깊어지면 참성품을 보고 부처를 이루게 된다. 참선 목적은 재명심견성(在明心見性)이라는 말처럼 마음을 밝히고 성품을 보는 것이다. 자기의 성품이란 곧 여래의 지혜와 덕상이다. 화두 '이 뭣고'가 순일해 한 생각이 일어나고 멸함이 없어지는 것을 고요함(寂)이라 하고, 그 속에서 화두가 없는 것을 무기(無記)라 하며, 고요함 속에서도 '이 뭣고'가 어둡지 않은 것을 영지(靈知)라고 한다. 우리가 생활속에서 수식관 등 명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무기공(無記空)속에 빠져 귀중한 세월을 헛되이 보내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본다. 구름 잡고 안개를 움켜 쥐는 살아 있는 용(龍)이 어찌 썩은 물에 잠겨 있겠으며, 해를 쫓고 바람을 따르는 용맹스런 말이 어찌 마른 동백나무 밑에 엎드려 있겠는가? 계속 침묵만 지키는 어리석은 선정(禪定)은 기왓장을 갈아 거울을 만들려는 격이고, 문자만을 찾는 미친 지혜는 바다에 들어가 모래를 세는 것이니, 그것은 모두 걸림 없는 기틀과 자재(自在)하고 미묘한 작용을 하는 화두 '이 뭣고'를 모르는 것이다.

> **"수행하는 사람은 육근 거둬 한 생각 일어나는 곳 살피고, '이 뭣고'로 비추면 생각 떠난 청정한 마음에 도달한다"**

이근원통(耳根圓通)이라, 들음을 돌이켜 자성(自性)을 들어야 한다. 도를 알려면 '이 뭣고'의 '이'를 심안으로 비춰 보아야 하며, 이것은 곧 관심(觀心)이며, 부모에게 태어나기 이전의 본래 면목은 시(是)인 참성품이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태어나기 이전의 본래 면목을 본다는 것은 곧 마음을 '이 뭣고'로 관(觀)하는 것이며, 원만이 청정한 깨달음을 비춘다고 하는 청정한 깨달음은 곧 이(是)인 마음인 것이다.

〈원각경〉에 보면 무변허공(無邊虛空) 각소현발(覺所顯發)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 말은 허공계의 온 우주가 모두 내 것이니 마음을 탁 놓고 살라는 의미이다. 무변허공도 각(覺) 즉 '이 뭣고'의 시에서 나툰 것이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있는 각성(覺性)이라는 마음 그릇은 이처럼 신령한 것이니 이런 신통묘용이 우리 앞에 현전(現前)하고 있는 것이다. 천지여아동근(天地如我同根) 만물여아동체(萬物如我同體)라는 말처럼 하늘과 온 대지가 나와 한 뿌리인 시요, 삼라만상의 모든 물체가 나와 한 몸인 시인데, 천당은 갈 곳이요, 지옥은 못 갈 곳이라면, 우주가 내 한 몸이요, 천당과 지옥이 내 한 집인데, 중생은 한 세계를 둘로 갈라 놓고, 한 몸을 분신시켜 천당과 지옥으로 나눠 보내니, 이것이 중생의 업연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제99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 | |
|---|---|
| 기본과정(3개월)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 중급과정(3개월)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
| 신행과정(1년) |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특수작법(1년) |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8년 4월 13일 개강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신화불사

■ 전통한옥 철거, 매입 매매.
■ 사찰 부동산 양도.
■ 법당 장엄, 조각.
■ 25평 요사채. 팔작지붕. 육송재목 상태좋음 (재목만) 기와포함. 4천만원
■ 38평 제실, 법당으로 매우 좋음. 가격 매우 저렴.
■ 60평 법당, 요사채 (2층 가능) 상태 A급, 맡배지붕, 저렴함.
■ 산신각 9평 (기와포함 6천만원)
■ 5층,7층 석탑(500~3,000만원) 다수 있습니다.
■ 이동식 주택 30평, 3천만원
■ 수익형 기도처 양도가 21억원 (서울) 잔고증명要 2억(보증금) 월1천만원(세입자 있음)
■ 사찰부지 4,800평 (포천) 양도가 15억, 다수의 석물 있음.
■ 80평 요사채, 4천만원

010-6545-2020
그외 다수의 매물 있습니다

당신의 전생을 알려 드립니다

나 보다 더 나를 잘 아는
내영혼의 메시지와 전생 이야기
전생의 인연법을 알면 현생의 해답이 보입니다.

» 궁금한 인연관계 «
연인, 가족, 부부, 동료 등의 전생인연관계

» 미래의 일 «
배우자 선택, 진로선택, 직장문제, 일의 성사 등

» 빙의치유 «
최면심리치유, 빙의 치유, 전생체험,고인과의 만남

수행자의 상담을 환영합니다.
효총사는 관세음보살님께서 현현하시어
당신을 향한 가피와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효총사 010-6560-9117